



# KISTI ISSUE BRIEF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 기관

##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

- 해외 허위 학술출판의 문제와 대응방안 -

<https://doi.org/10.22810/2018KIB001>

서태설 · 정영임

### CONTENTS

제 1 호

2018. 08. 27.

#### CHAPTER 01. 연구자를 현혹하는 허위 학술출판의 성행

- 손쉬운 연구성과 달성을 미끼로 내세우는 허위 학술단체
- 오픈액세스를 가장한 허위 학술지의 급격한 증가
- 유명 국제행사처럼 꾸며 연구자를 유혹하는 허위 학술회의

#### CHAPTER 02. 허위 학술단체에 대한 해외대응 사례

- 미국국립보건원, 논문 신뢰성 제고 위한 국제지침 활용 권고
- 독일 연구재단, '성실한 과학수행 확보를 위한 권고안' 개정
- OA학술출판사협회와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 행동강령 준수 요구

#### CHAPTER 03.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 투고 학술지·학술회의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신뢰할만한 학술지·학술회의 통합목록 구축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규정의 재정비



서태설 · 정영임

##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

- 해외 허위 학술출판의 문제와 대응방안 -



최근 독일 공영방송 NDR을 비롯한 18개국 23개 언론사의 국제 공조 취재팀의 탐사보도를 통해 허위 학술출판<sup>1)</sup>의 실상이 폭로되자, 이러한 허위 학술출판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가 이러한 허위 학술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sup>2)</sup>.

허위 학술출판은 연구성과물을 훼손하고 연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연구실적 평가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학술정보 접근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오픈액세스(OA) 패러다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관련 기관·단체들은 허위 학술지·학술회의 목록을 공개하고 건전한 학술지·학술회의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 허위 학술출판의 행태가 점점 더 교묘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 스스로 자정 노력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



### 연구자를 혐오하는 허위 학술출판의 성행



손쉬운 연구성과  
달성을 미끼로  
내세우는 허위  
학술단체



- » 최근 몇 년간 비정상적인 논문투고요청(Call for papers)이 증가하고 있음.
- » 연구성과의 양적 지표가 채용, 승진, 포상 등에 중요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연구자들은 “출판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Publish or Perish)”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1) 학술지(Journal)와 학술회의(Conference)는 대표적인 학술출판(Scholarly publishing)의 유형인데, 최근 Predatory journal과 Fake conference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 두 단어에 대한 번역으로 악탈적, 사이비, 부실, 가짜, 유령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출판의 핵심인 동료심사(Peer review)도 하지 않으면서 연구자들을 혐오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허위 학술출판, 허위 학술지, 허위 학술회의 등으로 부르기로 함.

2) <https://newstapa.org/43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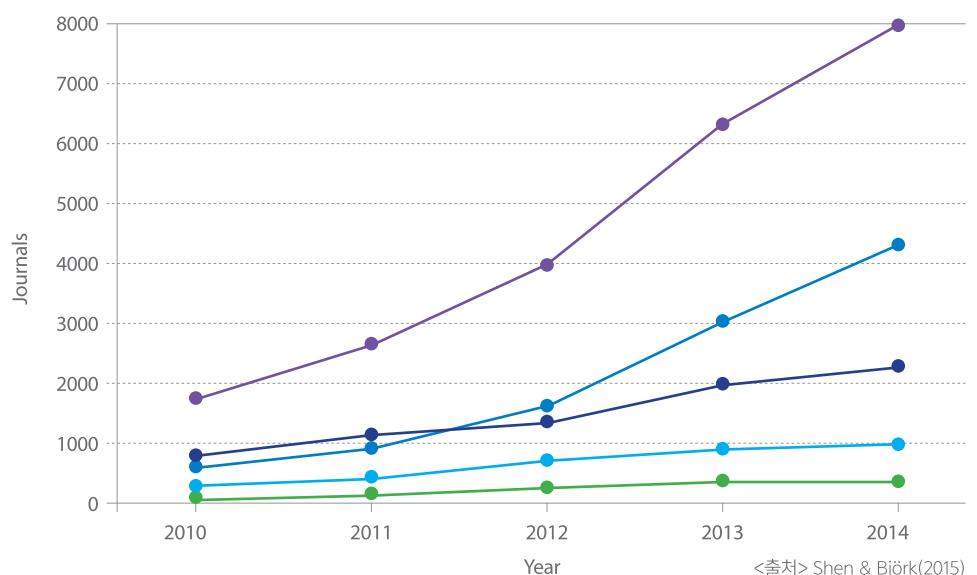
## 오픈액세스를 가장한 허위 학술지의 급격한 증가



- » 이러한 연구자의 부담감을 악용하여 허위 Impact Factor, 저렴한 논문게재료, 단시간 내 동료심사와 출판 등을 미끼로 연구자를 현혹하는 허위 학술단체와 출판사가 급증하고 있음.
- » WASET, OMICS Publishing Group, Bentham Open, Allied Academies 등이 이에 해당함.
- » 출판사의 지나친 상업화 등 전통적인 학술출판 및 유통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sup>3)</sup> 운동이 시작됨.
- » 편집·발간·운영·플랫폼 관리 등 학술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학술지 구독료가 아닌 논문게재료(Article Process Charge, APC) 형식으로 충당하는 '골드(Gold) OA 학술지'가 등장함.
- » 오픈액세스의 취지를 악용하여 제대로 된 동료심사 없이 저자로부터 논문게재료를 쟁기는 허위 학술지(Predatory journal)가 등장.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수준 낮은 OA 학술지를 양산하여 'OA 학술지는 저질'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데 일조함.
- »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996개 출판사가 8,000여 종의 허위 학술지를 발간함. 허위 학술지 출판논문 건수는 2010년 5만 3천여 건에서 2014년에는 41만여 건으로 급증함(Shen & Björk, 2015).

2010~2014년  
허위 OA 학술지 종수  
증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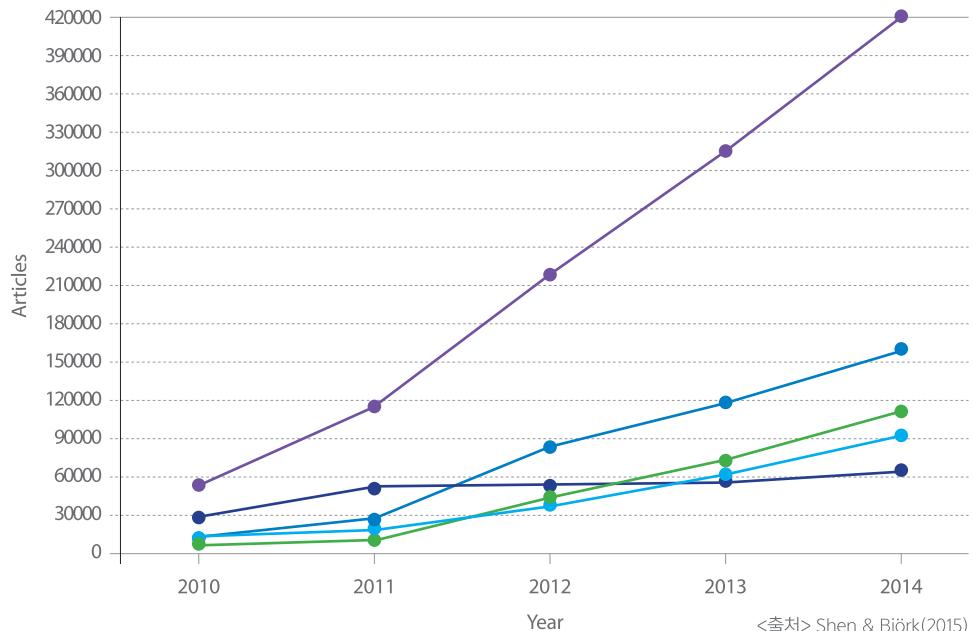
- 100 or more Journal Publisher
- 10-99 Journal Publisher
- 2-9 Journal Publisher
- Single Journal Publisher
- Overall development



3) 오픈액세스는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 없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학술논문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학술 생태계를 변화시킨다는 운동임.

2010~2014년  
허위 OA 학술지 논문 건수  
증가량

- 100+ Journal Publisher
- 10-99 Journal Publisher
- 2-9 Journal Publisher
- Single Journal Publisher
- Overall development



<출처> Shen & Björk(2015)

### 유명 국제행사처럼 꾸며 연구자를 유혹하는 허위 학술회의



» 허위 학술회의<sup>4)</sup>는 유명 국제학술회의인 것처럼 허위 정보로 웹사이트를 꾸미고 논문 발표 또는 초청 발표로 연구자의 참가를 유도함.

- WASET, OMICS 등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n...”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학술회의를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하며 참가비 수익을 취하고 있음.

»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았더라도 연구성과 달성이 시급한 일부 국내외 연구자들의 허위 학술회의 참가가 상당한 것으로 보도됨.

» 허위 학술지와 허위 학술회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Shamseer et al., 2017).

- 관심주제 범위가 폭넓음(예: 생의학 분야 학술지인데 비생의학 주제 포함)
- 매우 낮은 논문게재료(APC) 부과(예: APC < \$150)
- 승인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권위 있는 다른 학술지인 것처럼) 이미지를 왜곡하여 혼동되도록 유도함.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없이 이메일로 원고제출 요청
- 논문 철회, 교정, 오타 수정, 표절 등의 발간정책 부재
-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원고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미비
- 학술지 콘텐츠의 디지털 보존 여부와 방식에 대한 정보 부재

4) 허위 학술회의(Fake conference)는 영리를 목적으로 학술회의 참가비만 내면 동료심사 없이 학술 발표를 보장하나 실제로는 조직위원, 심사위원 및 좌장 없이 허위로 운영되는 학술회의를 지칭함.

- 웹사이트 문구의 문법이 이상하거나 철자 오류 빈발
- 웹사이트에서 Index Copernicus Value(ICV)를 사용
- 빠른 동료심사, 초청 논문 등의 문구로 저자를 현혹
- OA를 주장하며, 출판된 연구물의 저작권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연락처의 이메일 주소가 학술지 도메인이 아님. (예: @gmail.com, @yahoo.com)
- 결국, 쉽고 빠른 출판을 내세워 APC 장사를 함.

## 영리추구 허위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 » 검증되지 않은 허위 학술지·학술회의를 통한 엉터리 출판물의 양산은 정상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황폐화하고 연구계·학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
  - 연구성과물을 훼손하고 연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연구실적 평가의 불공정성을 유발

## 허위 학술단체와 허위 학술지목록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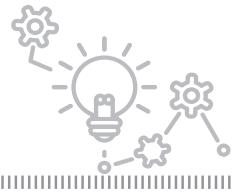


- »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사서인 Jeffery Beall은 허위 학술지 논문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서관 사이트에 허위 학술지목록을 공개함.
  - 2017년 초 해당 출판사들의 위협과 압력으로 리스트 삭제
- » 허위 학술지·학술회의 목록 공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소수의 학자와 익명의 정보전문가들이 다음의 웹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음.
  - Stop Predatory Journals(<https://predatoryjournals.com/journals/>)
  - Cabell's Blacklist(<https://www2.cabells.com/>)
  - Beall's List of Predatory Journals and Publishers(<https://beallslist.weebly.com>)
- » 허위 학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주체의 공신력 담보가 어려움.
  - 일부 허위 학술지는 SCI에 일시적으로 등재되기도 했으며 OMICS 학술지 중 10여 종 이상이 SCOPUS에 등재되어 있음<sup>5)</sup>.
  - 심지어 저명한 출판사 중 하나도 2000~2005년 사이에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허위 학술지를 발간한 바 있음(Grant, 2009).
- » 이들 목록에 포함된 학술지가 남아시아, 중동, 터키, 아프리카 등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이 지역의 신생 학술지가 허위 학술지로 오인되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음(Regier, 2018).

5) <https://www.journalguide.com/journals/search?type=publisher&publisher-name=OMICS&search-button=&advanced-filters=&advanced-filters%5B%5D=rs-verified&impact-low=0&no-impact=0&no-impact=1>

# CHAPTER [ 02 ]

## 허위 학술단체에 대한 해외대응 사례



### 미국연방거래 위원회, OMICS 그룹 기소



- »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논문게재료 부과와 잘못된 학술지정보로 연구자·학자를 기만한 혐의로 OMICS 그룹(인도 소재)을 기소함(Zimmer, 2017).
  - 2017년 11월 OMICS 서비스의 예비 금지 판결을 끌어냄.
  - OMICS는 다양한 분야의 700여 종이 넘는 ‘동료심사된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00명 이상의 편집위원회 위원과 저명한 심사자 그리고 1,000개 이상의 학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FTC는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며 OMICS 학술지가 출판하는 논문 대부분은 동료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밝힘.
  - 이 판결의 근거로 활용된 미연방법은 1999년에 입법한 사이버스쿼팅방지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형태로 연방상표법(Lanham act) 제43조(d)에 추가됨(손영식, 2007).

### 미국국립보건원, 논문 신뢰성 제고 위한 국제지침 활용 권고



- » 미국국립보건원(NIH)은 2017년 11월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논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국제지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함<sup>(6)</sup>.
  - Think Check Submit
  - FTC의 “Academics and scientists: Beware of predatory journal publishers”
  -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 독일 연구재단, ‘성실한 과학수행 확보를 위한 권고안’ 개정



- » 독일의 헬름홀츠협회는 “과학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내 매우 부정적이고 문제 있는 주체에 대해 모든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 » 독일연방 연구부장(Anja Karliczek)은 허위 학술회의와 허위 학술지를 통한 과학출판물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함.
- » 독일연구재단(DFG)은 허위 출판사를 통한 출판 지양이 ‘성실한 과학수행 확보를 위한 권고안’ 개정안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함(Müller-Jung, 2018).

6) <https://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s/NOT-OD-18-011.html>

## 중국 공산당 차원의 연구개혁안 도입



- » 2018년 5월 30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회의는 연구비 지원, 채용, 학술출판물 동료심사, 출판 등 연구 전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전반의 무결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혁안을 발표함(Cyranoski, 2018).
  - 중국과학기술부(MOST)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판결 권한을 가지며 이를 DB화하여 향후 채용 및 연구비 지원자격 심사에 활용할 예정임.
  - 국내외 불량 학술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연구자에게 경고를 하고 해당 출판물은 연구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임.
  - 중국과학원(CAS)은 연구 부정행위 판단기준, 모니터링, 조사절차,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징계수준 결정기준을 정립하는 등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중임.
  - 나아가 본 개혁안에는 연구 평가방법 개편 계획도 포함됨.

## 인도대학교부금 위원회, 신뢰할만한 학술지목록 관리



- » 인도대학교부금위원회(UGC)는 연구자에게 투고할만한 국내외 학술지 32,000여 종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함(Yadav, 2018).
  - 2018년 5월 의심스러운 학술지 4,305종을 UGC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리스트를 관리하고자 노력함.

## DOAJ, 등록 심사기준 강화



- » 오픈액세스 학술지 정보를 제공하는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는 제공 정보에 허위 학술지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재심사를 실시하여 수천 종의 학술지를 탈락시킨 바 있음(Baker, 2016). 또한 발간·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학술지에 DOAJ Seal을 부여하고 있음.

## OA학술출판사협회와 국제과학기술 의학출판사협회, 행동강령 준수 요구



- » OA학술출판사협회(OASPA)는 회원가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출판사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기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도 부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동강령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sup>7)</sup>.
- »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STM)도 회원 출판사가 행동강령과 학술출판 윤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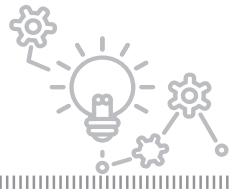
7) <https://oaspa.org/membership/code-of-conduct/>

8) <https://www.stm-assoc.org/membership/code-of-conduct/>

**CHAPTER**  
**[ 03 ]**

**투고  
학술지·학술회의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신뢰할만한  
학술지·학술회의  
통합목록 구축**

**허위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

- » 연구자가 학술지·학술회의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가이드라인 제공
  - Think, Check, Submit: 연구자가 투고 학술지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제공(<https://thinkchecksubmit.org/>)
  - Think, Check, Attend: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발표할 학술회의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제공(<https://thinkcheckattend.org/>)
  - COPE: 논문투고 및 출판윤리 전반에 대한 국제 표준가이드라인 제공(<https://publicationethics.org/>)

- » 개인 연구자가 전 세계 출판사·학술지·학술회의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함. 이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만한 학술지·학술회의 목록을 통합적으로 수집·관리·구축하여 제공함.
  - WoS, SCOPUS, Ulrich's list, PubMed, ERIC, Inspec 등 기존의 (인용)색인DB 등재 목록
  - DOAJ, OASPA, COPE, STM 등 공신력 있는 학술출판사협회의 회원사 목록
  - 각국 정보기관에서 관리하는 학술지의 리스트(덴마크 BFI 리스트<sup>9)</sup>, 인도 UGC 승인 학술지목록<sup>10)</sup>, 프랑스 CNRS의 학술지 순위<sup>11)</sup> 등)
  - ERA의 ConferenceRanks<sup>12)</sup>, CORE Conference/Journal Ranking<sup>13)</sup>, Journal Quality List<sup>14)</sup>, Cabells' Whitelist<sup>15)</sup> 등 선별과정을 거쳐 구축한 다양한 출처의 목록

9) <https://ufm.dk/en/research-and-innovation/statistics-and-analyses/bibliometric-research-indicator/bfi-lists>  
 10) <https://www.ugc.ac.in/journallist/>  
 11) <https://www.gate.cnrs.fr/spip.php?rubrique31&lang=en>  
 12) <http://www.conferenceranks.com/>  
 13) <http://www.core.edu.au/conference-portal>  
 14) <https://harzing.com/resources/journal-quality-list>  
 15) <https://www2.cabells.com/>

- » 연구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두어 새로 등장하는 허위 학술지·학술회의의 피해 경험을 온라인에서 공유
- »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허위 출판사의 위험성을 수시로 알림.

##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및 분쟁해결 지원



- » 허위 학술지·학술회의는 향후 새로운 고도의 속임수를 동원하여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음.
  - 허위 출판사로 인해 금전적 피해,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본 연구자와 유사 학술지명·도메인명으로 상표권의 침해를 입은 학술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sup>16)</sup>나 아시아도메인아름분쟁해결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서울사무소<sup>17)</sup> 등을 활용하여 허위 출판사로부터 자국의 상표권자(출판사·학술지)와 소비자(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및 분쟁 해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연구자 및 학술 커뮤니티의 자정 노력 전개



- » 허위 학술지·학술회의의 규모와 폐해가 확산하면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오픈액세스 학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도 있음(Berger & Cirasella, 2015).
- » 일부 연구자의 일탈만으로도 소속기관과 전체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출판·연구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학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함.
- » 허위 학술출판과 관련된 활동에 반복적으로 관여하는 연구자는 평가나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규정의 재정비



- »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규정을 재정비하여 고의적 허위 학술지·학술회의를 통한 연구성과물 출판을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시켜야 함.
- »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기준, 모니터링, 조사절차, 부정행위 유형별 징계수준 등에 대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함.
- » 연구성과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과 건전한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함.

16) <https://www.icann.org/>

17) <https://www.adndrc.org/office/so>

## 참고문헌



손영식. (2007). 미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요. *지식재산의 논단*, 101, 91–112.

Baker, M. (2016). Open-access index delists thousands of journals. Retrieved from <https://www.nature.com/news/open-access-index-delists-thousands-of-journals-1.19871>

Berger, M. & Cirasella, J. (2015). Beyond Beall's List: Better Understanding Predatory Publisher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76(3), 132–135.

Cyranoski, D. (2018). China introduces sweeping reforms to crack down on academic misconduct. Retrieved from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5359-8>

Grant, B. (2009). Elsevier published 6 fake journals. Retrieved from <https://www.thescientist.com/the-nutshell/elsevier-published-6-fake-journals-44160>

Müller-Jung, J. (2018). Tausende Forscher sind auf Fake-Journale hereingefallen. Retrieved from <http://www.faz.net/aktuell/wissen/tausende-forscher-auf-fake-journale-hereingefallen-15698688.html>

Regier, R. (2018). The Institutionalized Racism of Scholarly Publishing. Retrieved from <https://awayofhappening.wordpress.com/2018/06/09/the-institutionalized-racism-of-scholarly-publishing/>

Shamseer, L., Moher, D., Maduekwe, O., Turner, L., Barbour, V., Burch, R., Clark, J., Galipeau, J., Roberts, J., & Shea, B. J. (2017). Potential predatory and legitimate biomedical journals: can you tell the difference? A cross-sectional comparison. *BMC Medicine* 15(28), DOI:10.1186/s12916-017-0785-9

Shen, C. & Björk, B. (2015). 'Predatory' open access: a longitudinal study of article volumes and market characteristics. *BMC Medicine*, 13(230), DOI:10.1186/s12916-015-0469-2

Yadav, S. (2018). Inside India's fake research paper shops: pay, publish, profit. Retrieved from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inside-indias-fake-research-paper-shops-pay-publish-profit-5265402>

Zimmer, K. (2017). US Court Issues Injunction Against Open-Access Publisher OMICS. Retrieved from <https://www.thescientist.com/the-nutshell/us-court-issues-injunction-against-open-access-publisher-omics-30581>



**KISTI  
ISSUE BRIEF**

『KISTI ISSUE BRIEF』를 발간하면서

국가 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과학기술정보 관련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 및 동향을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하여 제공하고자

『KISTI ISSUE BRIEF』를 발간합니다.

『KISTI ISSUE BRIEF』는

KISTI의 역할과 책임(Roles & Responsibility, R&R)에 맞는

다양한 주제 분야와 관련 이슈에 대해, 특히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법과 연구를 통해 최신 국가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

필자 서태설

학술정보공유센터 센터장  
T. 02-3299-6290  
E. tsseo@kisti.re.kr

정영임

학술정보공유센터 선임연구원  
T. 02-3299-6028  
E. acorn@kisti.re.kr



제 1 호

발행일 2018. 08. 27.

발행인 최희윤

편집위원 조금원, 최현규, 정용일, 서동민,  
고명주, 박영욱, 이상민

발행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https://www.kisti.re.kr>

ISSN 2635-5728

---

본 『KISTI ISSUE BRIEF』의 내용은 KISTI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